
베네수엘라의 학생 운동: 차베스의 카리스마로부터 네트워크 투쟁까지

라파엘 우스카테기

사회학자, 인권운동가, 독립언론인 베네수엘라 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Provea)의 연구책임자.
전쟁저항자인터넷네셔널(WR-RC) 평의회 소속이며, 『리베르타리오』 신문의 편집위원.

원제와 출처: Rafael Uzcátegui, “Movilizaciones estudiantiles en Venezuela : Del carisma de Chávez al conflicto en redes”, en *Nueva Sociedad*, No. 251, mayo-junio de 2014, pp.153-165.

핵심어: 학생, 시위, 네트워크, 우고 차베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지난 2014년 2월 4일 이후 시위의 물결이 베네수엘라를 뒤덮었다. 비정부기구인 베네수엘라 인권교육행동프로그램(Provea)과 베네수엘라 사회갈등감시기구(OVCS)의 추정에 따르면, 2월과 3월 사이에 16개 주에서 적어도 8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거리에 나왔다. 이들은 행진, 집회, 철야 농성, 인간 시슬, 집단 기도, 피켓시위, 거리의 음악가 등 다양한 길거리 예술인이 동참한 문화 시위, 폭력과 폭동으로 비화할 잠재력을 지닌 길거리점거시위(guarimba)에 이르기까지 복합적인 전략을 사용했다.¹⁾ 국제사면위원회의 살릴 세티 사무총장은 “사람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 것은 극도로 불안정한 치안과 범죄, 생필품의 부족에 항의하기

1) 저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3/4/2014.

위해서였다”고 단언했다.²⁾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루이사 오르테가 디아스 검찰총장은 시위와 관련한 일련의 사태로 말미암아 39명이 사망하고 608명이 부상했다고 발표했지만, 국제사면위원회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치고 2,000명이 넘게 체포되었다고 추정했다.³⁾ 한편, 니콜라스 마두로 정부는 이번 사태가 2002년 마찬가지로 쿠데타를 기도한 것이라고 비난하며,⁴⁾ “야권이 배후 조종한” “우익 파시스트” 시위라고 단정했다.

베네수엘라의 현재 상황은 단순한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베네수엘라 중앙은행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2013년의 물가상승률은 56.2%를 기록했다. 그간 심각한 경제위기는, 우고 차베스의 공백으로 야기된 정치적 위기의 기폭제가 되었다. 2013년 3월 차베스가 사망하기 전까지, 그의 정치적 프로젝트 뿐 아니라 그를 끌어내리려는 반대파의 노력 역시 차베스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이다. 살아 있는 ‘사령관 대통령’의 통치에서 부재하는 신화적 ‘절대자’의 통치로 변화했다는 것은 곧 차베스주의(chavismo)에서 포스트차베스주의(poschavismo)로 이행했다는 의미다. 역사학자 마르가리타 로페스 마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한다.

이 정도의 무게감을 지닌 카리스마적인 리더가 죽은 후 남는 것은 우왕좌왕하고 무능한 행정부뿐이다. 우리나라[베네수엘라] 엘리트는 정치적 역량이나 업무 능력 때문이 아니라 대장에게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대장

2) Amnistía Internacional, “Salil Shetty, informe sobre Venezuela”, video, 31/3/2014. <http://youtu.be/CvCgGlnM5y0>

3) Amnistía Internacional, *Venezuela: Los derechos humanos en riesgo en medio de protestas*, Amnesty International Publications, Londres, 2014. <http://bit.ly/1fzuzW2>

4)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던 2002년 4월 기업가 페드로 카르모나 에스탕가는 쿠데타를 시도하여 자칭 대통령이라고 부르고, 몇 시간 동안 헌법을 폐지한 적이 있다.

이 죽은 후에는 어떻게 하면 권력을 유지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신정부를 정당화할 수 있을까, 그런 일에만 몰두한다.⁵⁾

최근의 시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마두로 정부에 비판적인 학생운동단체이다. 3월에 실시한 여러 조사가 입증하듯이, 학생운동단체는 시위에 참가한 여러 단체 중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집단으로 부상했다. 그동안 정부가 공신력 있는 단체로 인정해 온 베네수엘라 자료분석연구소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시위의 의도를 가장 잘 표현한 문장을 고르는 설문에서 조사 대상자의 50.4%는 “현재 베네수엘라가 겪고 있는 경제 위기와 치안 악화에 항의하기 위해 학생들이 주도한 평화 시위”라는 문항을 선택했다. 이는 “반정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해 야권과 외세가 배후에서 모의(12.8%)”라는 문항이나 “다른 사회적 문제는 좌시한 채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시위(7.3%)”라는 문항의 선택률을 훨씬 상회한다. 같은 조사에서 학생운동은 역할 수행 부분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답변을 종합해 보면, 학생운동단체에 대해 “매우 좋다”와 “좋다”를 선택한 응답자는 51.5%로, 언론매체(35.9%)나 군대(31.5%)보다 높게 나타났다.⁶⁾

이 글에서는 통계를 사용하여 베네수엘라의 청년층에 대한 윤곽을 그려 보고, 우고 차베스가 집권한 1999년을 중심으로 전후의 학생운동을 설명할 정보를 제공하려 한다. 마지막으로는 연구자 이리아 푸요사(Iria Puyosa)와의 대화를 통해 마두로 정권을 비판하는 학생들이 주도한 투쟁의 특징이 무엇인지 네트워크 이

5) Margarita López Maya, “El legado de Hugo Chávez”, intervención en la Librería Lugar Común, Caracas, 9/3/2014. http://youtu.be/YBsyUVv_EA0

6) IVAD(Инstituto Venezolano de Análisis de Datos), *Estudio Nacional del 21 al 30 de marzo 2014*. <http://www.mediafire.com/?d688v2s22p7si2t>

론을 바탕으로 분석할 것이다. 푸요시는 에콰도르의 라틴아메리카사회과학연구소(Flacso)의 정치커뮤니케이션 대학원과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사회경제학부의 교수직을 겸임하고 있으며 최근의 연구 분야는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네트워크 사회이다.

1. 베네수엘라 청년층에 관한 통계자료

2011년 베네수엘라 통계청의 인구주거조사에 따르면, 전체 인구는 28,946,101명이고, 10세에서 24세 사이에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며, 국민의 평균 나이는 27세를 기록하는 등 젊은층이 많다는 것이 두드러지는 점이다.⁷⁾ 한편 2013년 정부부처인 청년부가 실시한 제2회 청년설문조사에 따르면 15~24세 사이의 청년 인구 가운데 79%(4,094,199명)가 현재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다.⁸⁾ 학생 가운데 67%는 공립교육기관에 재학 중이었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77%가 대학 졸업 후 베네수엘라에 남을 것이라 대답했으며, 15%는 경제 사정 곤란으로, 14%는 임신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노동 여부에 대해서는 30%가 일을 하고 있다고 답했으며, 30%는 일을 하지 않고 학업에만 매진한다고 답변 반면,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사람은 9%였다. 게다가 64%는 현재 하고 있는 일과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첫 아이를 가지는 평균 나이는 19.9세로 나타났다. 베네수엘라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무엇이라는 질문에 관해서는 23%가 치

7) INE(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Resultados básicos Censo 2001*, Caracas, 8/8/2012. <http://www.slideshare.net/plumacandente/resultados-basicos-censo-2011>

8) 원문의 오류는 제2회 청년설문조사보고서(II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에 의거하여 수정하였다 — 옮긴이.

안, 20%가 인플레이션과 생계비, 16%가 생필품 부족과 품귀 현상을 꼽았다. 조사대상자가 가장 높게 평가한 기관은 대학(18%)이었으며, 정당을 선택한 비율은 6%에 그쳤다.⁹⁾

위의 결과는 안드레스 베요 가톨릭대학교(UCAB)의 청년프로젝트에서 실시한 조사 결과와 비교할 만하다. 교육 분야의 경우, 65%가 공립학교에서, 35%가 사립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다고 답했다. 20~24세의 남성 중 30.4%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학업을 그만뒀으나 같은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여성은 16.5%로 나타났다.¹⁰⁾ 응답자의 35%는 일을 하고 있으며, 31%는 학업에만 매진하고, 11%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고 나머지 23%는 일도 공부도 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베네수엘라의 상황을 2~3년 전과 비교하라는 질문에는 51%가 ‘이전보다 나쁘다’를, 27%가 ‘이전과 같다’를 택했다. 현재 가장 시급한 국가적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앞의 설문조사와 마찬가지로 59%가 식료품 부족, 53%가 치안, 44%가 빈곤, 42%가 인플레이션을 꼽았다. 개인적으로 가장 영향을 받는 문제로는 46%가 치안을 선택했고, 이어 36%가 경제 사정을, 33%가 일자리 부족을 들었다. 정치체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어떤 정치체제보다도 민주주의를 선호한다는 비율이 69%로 가장 높았다.¹¹⁾ 하지만 지금의 민주주의 체제의 운영방식에 대해서는 그다지 만족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40%였고, 25%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적 입장을 묻자 응답자의 33%는 차베스주의를 지지한다고 답했고, 반차베스주의는 27%,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은 응답자는 27%였다.¹²⁾

9)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Juventud, *II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 s./f., <http://www.inj.gov.ve/images/pdfs/ResultadosEnjuve2013.pdf>

10) 임신과 양육, 가사노동을 이유로 학업을 중단한 비율은 남자 8%, 여자 31%로 나타났다 — 옮긴이.

11) 제2회 청년설문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정치체제 선호도는 참여민주주의 73%, 대의민주주의 6%, 사회민주주의 1%이며, 경제체제 선호도는 사회주의 60%, 자본주의 21%이다 — 옮긴이.

12) UCAB(Universidad Católica Andrés Bello), *Encuesta Nacional de Juventudes 2013. Presentación de resultados*,

2. 기존의 학생운동

항간에는 차베스 정부가 베네수엘라의 무상교육을 시작했다는 기이한 신화가 있는데,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¹³⁾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한 지 2년 만에 제정된 1961년 헌법을 보면, 모든 국민은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해 학교 및 교육 기관을 설립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였다. 석유 수익 덕분에 대학을 포함한 공교육기관이 증가했고, 이에 따라 취학률도 점점 늘어났다. 고등교육기관에 등록한 학생 수는 1950년에 6,900명에서 1958년에는 11,000명으로 늘었고, 점진적으로 증가해 1981년에는 331,000명에 달했다. 그로부터 9년 후인 1990년의 대학생 수는 513,000명을 넘어섰고, 차베스가 집권하던 2001년에는 909,006명이 되었다.¹⁴⁾ 십 년이 지난 2010년, 이제 대학생 수는 무려 1,687,504명에 이르렀다.¹⁵⁾

민주주의 체제로 접어들고 고등교육 진학률이 한창 증가하던 1969년, 프랑스의 5월 혁명에 영향을 받은 대학혁신운동이 일어났다.¹⁶⁾ 이에 정부는 대학에 개

s./f. <http://proyectojuventud.ucab.edu.ve/wp-content/uploads/2013/12/Presentacion-enjuve-3-12-2013.pdf>

13) 미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감독 마이클 무어 역시 이런 신화에 일조하였다. “우고 차베스는 모든 달러를 [...] 모든 국민을 위한 무상교육과 무상의료에 사용했다.” 다음을 참고. “Documentalista estadounidense Michael Moore elogió a Chávez”, en *Correo del Orinoco*, 15/4/2014. <http://www.correodelorinoco.gob.ve/politica/documentalista-estadounidense-michael-moore-elogio-a-chavez>

14) Fernando Reimers, “Educación y democracia. El caso de Venezuela, en la educación”, en *Revista Latinoamericana de Desarrollo Educativo*, No. 166, 1993.

15) Ministerio del Poder Popular para la Educación Superior (MMPEU), *Serie histórica de matrícula de pregrado (1960-2011) por institución*, 2012. <http://estadisticasieu.mppeu.gob.ve/dss/pages/datamart/ies/reports/templateDinamicStatic.jsp?query=iesOnlyTable>

16) 베네수엘라의 대학혁신운동에 관해서는 다음을 참고. Nelson Méndez, “La Renovación en la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1968-1969): Érase una vez el futuro”, 1995. http://www.analitica.com/bitlibro/nelson_mendez/renovacion.asp

입했고, 특히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는 일 년 넘게 폐쇄되었다.¹⁷⁾ 그 결과, 1970년 대학법을 개정하여 대학교에 대한 정치적 통제를 강화했다. 이 법은 전통적인 자치 대학의 대안으로 실험 대학을 도입하여 정부의 통제권을 강화하였다.¹⁸⁾

역사적으로 대학은 여러 좌파 단체가 지도자를 모집하고 양성하는 특권적 공간이었다. 치열한 무장투쟁을 전개하던 1960년부터 1972년까지도 마찬가지였다. 1970년, 혁명좌파 운동(Movimiento Izquierda Revolucionario)이 분열한 이후 등장한 붉은 깃발(Bandera Roja)은 재빠르게 무장투쟁의 막차에 올라 학생운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1987년에는 혁명청년연합(Unión de Jóvenes Revolucionarios)이 결성되어 대학 사회에서 입지를 굳히기도 했다. 그리고 1988년 말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압파로 학살사건을¹⁹⁾ 계기로 학생들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난 시위의 선두에 섰다. 이것이 바로 몇 달 후 일어난 유명한 대중봉기, 카라카스사태(Caracazo)의²⁰⁾ 서막이었다.

1990년대는 공교육을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려는 신자유주의의 위협이 밀려오는 시기였다. 두 번째로 정권을 잡은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는 1989년 국제통화기금(IMF)의 협약의향서에 서명했고, 경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뒤이어 대통령이 된 라파엘 칼데라는 국제기구와 맺은 협약에 맞서겠다는 공약으로 선거

17) 이때 라파엘 칼데라 대통령의 명령으로 군대와 경찰, 국가정보원 등 3천여 명이 대학캠퍼스에 진입하여 무력으로 시위를 진압하였다. 흔히 ‘앵거루 작전’(Operación Canguro)이라고 부르는 이 사건으로 학생 10명이 사망하고 수백 명이 부상을 입었다 — 옮긴이.

18) Victor Morles, Eduardo Medina Rubio y Neptalí Álvarez Bedoya, “La educación superior en Venezuela”, *Informe 2002 a IES.ALC-Unesco*, Caracas, 2003. <http://unesdoc.unesco.org/images/0013/001315/131594s.pdf>

19) 군대와 경찰의 합동 지휘로 국경 지역의 어부 14명을 살해하고 마치 게릴라 조직을 진압한 것처럼 조작한 사건이다.

20) 1989년 카를로스 안드레스 페레스 대통령이 IMF와 협약을 맺고 구조조정을 실시함으로써 물가가 폭등하자 생존권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이 거리로 뛰어나와 촉발된 대규모 시위이다. 공식 추산 300명, 비공식 추산 3천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 옮긴이.

에서 승리했다.²¹⁾ 하지만 1996년 4월 15일 칼데라 대통령은 거시경제 구조조정 계획인 ‘베네수엘라 아젠다’를 들고 나왔다. 교육 부문을 보면, 예산 삭감과 재정 적자 대응 방안으로 학비를 부과하려고 하였는데, 이는 무상교육이라는 헌법상 원칙에 반하는 일이었다.²²⁾ 이러한 이유로 학생운동단체는 ‘종합경제정책’ 반대 운동의 중심에 서서 환경운동, 원주민단체, 여성운동단체, 지역주민단체, 인권운동 NGO들과 함께 싸웠다.

이런 배경 속에서 1993년, ‘붉은 깃발’의 주도 하에 다양한 분파들의 조직적 플랫폼 역할을 했던 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FEUV)이 출범했다. 그 밖의 연합 단체로는 80운동(M-80)을 계기로 결성된 대학연합조정위원회와 기독교사회당(COPEI)과 연계된 대학기독교민주운동(DCU) 등이 있었다. 이런 단체는 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의 영향력에 대항하려고 노력했다. 1990년대 학생운동의 주요 쟁점은 학생특별요금제 보장, 민주화, 대학 입학 과정의 투명성 확보, 유상교육을 모색하던 고등교육법안(PLES) 거부, 학생 사회보장제도 도입(입원, 수술, 출산 보험, 장학제도, 급식시설) 등이었다. 1985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시위의 중심에 있던 학생운동은 주요 전략으로 소요,²³⁾ 행진, 길거리점거²⁴⁾ 등을 채택했고, 그 결

21) 페레스 대통령은 1974년부터 1979년까지 그리고 1989년에서 1993년까지 두 차례 집권했고, 칼데라 대통령 역시 1969년에서 1974년까지 그리고 1994년에서 1999년까지 집권했다.

22) *En defensa de la universidad gratuita. La lucha de los estudiantes de la Universidad Simón Bolívar en 1998 para restituir la gratuidad*, Provea, Caracas, 2008. <http://www.derechos.org/ve/pw/wp-content/uploads/Experiencias-usb.pdf>

23) 시위참여자, 행인, 경찰 사이에 일어난 충돌 때문에 정상적인 시위에 차질이 빚어지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심각한 무질서를 말한다. 소요가 일어나면 사람들은, 경찰과 대치, 충돌, 경찰의 시위대 진압으로 인해 충격과 공포 상태에 빠진다. 소요는 큰 규모의 폭동이나 폭발에서부터 쉽게 통제할 수 있는 자잘한 소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황을 뜻한다. 폭력 시위 방식 중 하나이다. 1985년부터 1999년간 베네수엘라의 시위에 대한 정보는 다음 글 참고, Margarita López Maya, *Base de datos El Bravo Pueblo*, Universidad Central de Venezuela, Caracas, 2003.

24) Margarita López Maya, *Protesta y cultura en Venezuela: los marcos de acción colectiva en 1999*, Clacso, Buenos Aires, 2002. <http://biblioteca.clacso.edu.ar/clacso/becas/20110126085903/2cap1.pdf>

과 사망자, 부상자, 연행자가 속출하기 했다. 군대나 경찰이 진입하지 못하는 자치대학교 인근에서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다. 이런 전략은 2014년 학생시위에서 되풀이되었다.

3. 차베스 정부와 학생운동

1998년, 차베스와 같이 기존의 정치조직과 거리가 먼 후보자가 승리하는 것을 목격한 베네수엘라 국민은 많은 기대를 품었다. 선거운동 기간에 차베스는 학생운동에 동조했고, 군인 출신으로서 풍기던 위화감을 없애는 데 성공했으며, 공교육을 확대하고 진학률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베네수엘라대학생연합, 80운동, 붉은 깃발 등의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하던 대학생지도자들이 차베스 정부에 들어가기도 했다. 그리하여 루이스 피게로아, 엘리아스 하우아, 리카르도 메넨데스, 호르헤 로드리게스, 빅토르 노보, 레오나르도 몰리나, 후안 루이스 소사, 마네사 다비에스, 재클린 파리아스 같은 인사가 차베스 정부에서 일하게 되었다.

차베스는 사회운동의 전략과 같은 방식으로, 권력을 장악하는 데 일조한 학생운동단체를 제도화·국영화하여 약화한 후, 별다른 자율권이나 독립성이 없는 다른 단체를 만들어서 대체시켰다. 예를 들어 2001년에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의 대학본부 점거를 주도하고 ‘3월 28일 운동’을 만들었던 학생들은, 2002년 4월 반차베스 쿠데타 이후 차베스 대통령이 만든 볼리바르학생연합(FBE)으로 흡수되었고, 또다시 학생회의 형태로 대체되었다. 과거에 학생지도자였던 루켄 키타나가 이야기했듯이, 볼리바르 학생운동단체의 두 번째 특징은 “학생대표를 뽑는 선거가 실시된 모든 기관에서(공립실험대학이나 사립대학이나 가릴 것 없이), 특히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와 같은 자치대학 선거에서 모두 조직적으로 패배했다”



거리 시위에 나선 차베스주의자

는²⁵⁾ 것이다. 1999년부터 대학연합(FCU)에 속한 학교의 선거에서 볼리바르 학생운동단체가 승리한 것은 2004년 메리다의 안데스대학교, 2003년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2007년 오리엔테대학교, 딱 세 번뿐이었다.

공립대학교를 정치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차베스는 새로운 고등교육 기관을 만들었다. 우선 1999년에는 국립실험군사과학기술대학교(Unefa)를 개편하여 일반 시민도 입학할 수 있도록 했고, 2003년에는 베네수엘라 볼리바르대학교(UBV)를 만들었으며, 2008년에는 국립실험예술대학교(Unearte)의 문을 열었다. 하지만 이런 대학이 진학률을 높이는 데는 기여했다고 할지라도, 학생들이 직접 선출한 학사운영참여(cogobierno)²⁶⁾ 대표단은 구성되지 않았

25) 저자가 직접 확인한 내용이다. 6/4/2014.

26) 대학생의 학사운영 참여는 1918년 아르헨티나 코르도바에서 시작된 대학개혁운동에서 태동했는데, 그 목적은 1)권력으로부터 대학의 자율성을 수호하고 2)학내의 소수 보직교수와 교육당국자가 독점하고

으며, 권위주의적 집행부만이 자리 잡았다.²⁷⁾ 게다가 소위 ‘학생민병대’와 같은 단체가 생겨나며 학생의 군사화가 촉진되었다.²⁸⁾

4. 2007년부터 2014년까지: 양극화된 정치에서 네트워크로

볼리바르주의 정책과 양극화된 정치는 베네수엘라 사회운동의 자율성을 심각하게 붕괴하고 약화했다. 학생운동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베네수엘라대학생 연합은 2000년도부터 문자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실사 각 대학과 대학 연합의 선거 자체는 유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들 단체는 2000년 이전에 이미 학생들을 결집하는 힘을 잃었다.²⁹⁾

2007년 가장 오랜 역사와 인지도를 지닌 방송채널인 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RCTV)의 면허 갱신이 정치적인 이유로 거부되었을 때,³⁰⁾ 학생운동은 대중적

있는 학사운영에 학생대표가 참여함으로써 학사운영을 민주화하려는 것이었다. 베네수엘라에서는 1946년부터 단과대학회, 단과대운영위원회, 대학운영위원회에 학생대표가 참여하게 되었다—옮긴이.

27) 일례로 국립실협예술대학교의 학칙은 퇴학 사유를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본교 안팎에서 도덕 규범이나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 “국가의 이익에 반하는 의견을 공공연하게 표명하는 경우”, “기강을 흐트러뜨리거나 당국에 반하는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 “본교의 행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의 허가를 득하지 않고 본교와 관련된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을 인터넷, 케이블, 휴대전화 문자를 이용해서 민영·국영·해외 언론매체(텔레비전, 라디오, 신문)에 내보내는 경우”, “본교 당국자를 도발하거나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경우”, “본교 당국자 앞에서 학생 대표를 자처하여 집단행동을 하는 경우”, “본교 행정위원회나 교육위원회의 허가 없이 공식 문서를 출판하는 경우” 등이다.

28) Héctor Rodríguez, “Milicias estudiantiles”, en ccsinfo, s./f., <http://www.ciudadccs.info/?p=58920>

29)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 학생 선거의 평균 기권율이 60% 이하로 내려가지 않는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http://www.ucv.ve/organizacion/consejo-universitario/comision-electoral-ucv/elecciones/resultados-electorales/estudiantes.htm>

30) 베네수엘라 정부는 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이 2002년 4월 쿠데타를 지지했기 때문에 면허 갱신을 불허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당시 동일한 논조를 보였던 다른 채널은 정부와 사후 협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인 행위주체로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공립대 학생뿐 아니라 사립대의 학생도 새롭게 운동에 참여하여 ‘자유를 위한 학생들’이라는 포괄적인 이름 아래 뭉쳤다. ‘자유를 위한 학생들’은 주장과 요구의 범위를 베네수엘라 헌법이 보장하는 참여권과 표현의 자유로 한정 지음으로써 “친정부적인 반대 세력”으로 떠올랐다. 이들은 암묵적으로 차베스 정부의 합법성과 정당성을 수용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정부를 무너뜨리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³¹⁾ 매스컴은 학생 시위를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었으므로,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은 길거리 시위를 불리바르주의 학생과 반대파 사이의 제도화된 논쟁으로 옮겨 놓는 것이었다.³²⁾ 라디오카라카스텔레비전 이슈가 진부해지자 학생운동진영은 차베스 대통령의 개헌안에³³⁾ 반대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학생운동진영의 지도부 중 잘 알려진 활동가들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국회에 진출하기 위해 학교를 나왔다. 신시대당(UNT)과 사회민주주의 계열의 포데모스당(Podemos)과 같은 정당은 지도부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으려고 이들을 영입했지만, 지속적이고 조직적인 혁신을 이뤄내지는 못했다.³⁴⁾ 이들이 실패한 또 다른 요인은, ‘학생 계급’이라는 정체성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운동 주체와 차별화되는 의제(agenda) 제시에 필수불가결한 고유의 입장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마리아 필라르 가르시아 구아디아나 아나 마옌과 같은 연구자는 학생운동가들이 갈등

31) 2007년 대부분의 야권이 ‘헌법상의 절차에 따른 대통령 퇴진’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에 반해, ‘자유를 위한 학생들’은 대통령의 사임이나 퇴진을 주장하지 않았다. 다음 글 참고, María Pilar García Guadilla y Ana Mallén, “El movimiento estudiantil venezolano: narrativas, polarización social y públicos antagónicos”, en *Cuadernos del Cendes*, No. 73, enero-abril de 2010. <http://www.scielo.org/ve/pdf/cdc/v27n73/art04.pdf>

32) 필자가 이리아 푸요사와 대화한 내용이다, 5/4/2014.

33) 이 개헌안은 2007년 12월 2일 국민투표로 부결되었다.

34) 은 고이코에체아를 제외한 미겔 피사로, 프레디 게바라, 스탈린 곤살레스, 리카르도 산체스가 이에 해당한다.

의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의 범주를 넓혔고, 국가적 화해를 구상함으로써 반대파 대중의 담론적인 한계를 확장하는 데 기여했지만, 양극화된 구도를 깨뜨리거나 대안적인 대중을 만드는 데는 실패했다고 평가한다.³⁵⁾

네트워크 이론을 통해 생각해보면, 2013년까지 볼리바르운동은 차베스라는 중심점에 집중된 네트워크처럼 기능했고, 야권 역시 당연히 같은 방식으로 구조화될 수밖에 없었다. 가설이지만, 볼리바르운동에 대항하는 갈등 구조가 탈중심적인 네트워크로 변한 것은 다음의 세 가지 상황에 기인한다. ①차베스가 부재하고, ②기존 야당의 대표성이 무너져서 다양한 야권 세력의 등장이 가능해졌으며, ③차베스주의정부와 유착된 경영진이 주요 언론매체를 매입함으로써 정보가 심각하게 차단되었고, 결국 반정부인사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2014년 2월 4일, 접경도시 산 크리스토팔의 타치라국립대학교 학생들은 치안 문제를 환기하고 한 학생에게 일어난 성폭력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학생 여섯 명이 연행되자 시위가 확산했고, 부상자와 연행자 역시 늘어났다. 얼마 후 12일에 전례 없던 일이 일어났다. 비슷한 방식으로 16개 주에서 시위가 발생하면서 이제껏 국내 시위의 선봉에 섰던 카라카스가 그 자리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카라카스에서 세 사람이 야간 시위 도중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마두로 대통령은 “나치파시스트적 성향”의 시위였다면서³⁶⁾ 시위참여자들에게 이들 죽음의 책임을 물었고,³⁷⁾ “신규 반정부 집회”를 저지하겠다고 밝혔

35) María Pilar García Guadilla y Ana Mallén, ob. cit.

36) Agencia Venezolana de Noticias, “Maduro alerta que corriente fascista intenta generar violencia en Venezuela”, en *AVN*, 12/2/2014. <http://www.avn.info.ve/contenido/maduro-alerta-que-corriente-fascista-intenta-generar-violencia-venezuela>

37) 유포된 사진과 비디오 증거 때문에, 며칠 뒤 정부는 살해당한 사람들 가운데 두 명의 죽음은 베네수엘라 국가정보원의 책임이며, 나머지 한 명은 민병대의 소행이라고 인정해야 했다.

다. 그러자 야당연합인 민주통합회의(MUD)는 ‘대중 행사’ 없는 3일의 애도 기간을 선언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인 2월 13일, 마두로 대통령뿐 아니라 대부분의 야권도³⁸⁾ 동조한 시위 해산 요청을 무시하고 전국에서 시위가 계속되었다.

미누엘 카스텔스는 현 사회운동의 특징은 바로 자발성에 있다고 진단했다. 어떤 구체적 사건이 터지고, 이로 인해 분노의 불꽃이 점화되어 운동이 진행되기 때문이다.³⁹⁾ 2013년 베네수엘라는 공식적으로 56%라는 인플레이션율을 기록했고, 사회기반시설 부분의 적자 누적, 식료품과 생필품의 품귀 현상(특히 지방도시 주민은 더욱 열악한 상태였다)을 빚었다. 일례로 산 크리스토팔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물가가 비싼 도시였다. 이 불안한 시국은 2014년 1월 12일 배우 모니카 스페아르가 남편과 여행 중에 습격을 받고 살해당하는 사건 이후로 폭발했다.

현재 극도로 분산되어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갈등 양상에 관해 이리아 푸요사의 견해를 들어보았다. 푸요사는 다른 무엇보다도 “2월 초부터 시작된 학생운동 진영의 시위는 대학캠퍼스 내의 불안한 치안 상태, 범죄 행위와 정치적 폭력에 대한 감정적인 거부로부터 비롯된 것”이라 주장한다. 사회관계망 서비스와 대중 토론의 단골 질문인 “시위의 배후에 우파 정당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푸요사는 다음과 같이 대답한다.

우선 우파가 소수라는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기본적으로 우파는 베네수엘라프로젝트 당과 같은 소수당이나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를 중심으로 뭉친 인사들처럼 소수당조차 창당할 힘이 없는 사람들이 전부이다. 마이애미에 근거지를 두고 우파 담론을 만들어내고 있는 집단은 베네수엘라 정치단체와 유기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

38) 레오폴도 로페스,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 안토니오 레데스마가 대표하는 야권은 여기에 속하지 않는다.

39) Manuel Castells, *Redes de indignación y esperanza*, Madrid: Alianza, 2012.

고 있으며 사실상 영향력이 거의 없다. '우파'는 마스크에서만 존재할 뿐, 거리 시위나 선거 정치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통합회의에 속한 정당은 대부분 공식적으로 중도 또는 중도좌파이다.

그렇다면, 누가 시위를 주도하는가? 푸요사는 시위사태 초기에는 레오폴도 로페스와 같은 정치인이나 베네수엘라 중앙대학교의 후안 레케센스 같은 학생운동 지도자가 시위를 통솔하려고 노력했지만, 조직적이고 공식적인 시위 지도부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학생운동 진영이 직접적으로 소집한 시위를 주도한 것은 주요 자치대학⁴⁰⁾과 사립명문대학의 학사운영참여 대표와 학생회 대표였다. 그리고 카라카스뿐 아니라 전국에서 학생운동이 주도하지 않은 지역주민의 시위나 큰 규모의 대중시위가 발생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처음 열흘 이후에는 점점 더 민주통합회의에 속한 정당과 시위 참가자 사이의 연결고리는 희미해졌다. 시위참가자들은 야권이기는 했지만 정당과는 관련이 없었다. 시위대의 이러한 반정당적 성격은 학생지도자의 담론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이들은 모두 당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다.

2014년 2월 18일 오후, 공공건물 손괴와 방화, 범행 교사, 범행 연루 혐의로 구속된 야권 지도자 레오폴도 로페스가 체포되었다. 여기서 잠시 로페스는 시위의 구심점이 되려고 수감되었다고 가정해보자. 일부 학생은 로페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지만 중구난방으로 다양한 요구를 하고 있는 시위대

40) 베네수엘라 애국학생회 같은 학생운동 진영의 여러 성향은 선출된 학생 대표단의 선언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을 참고. “Manifiesto del Movimiento Estudiantil Venezolano”, 9/3/2014. <http://cdn.diariorepublica.com/cms/wp-content/uploads/2014/03/manifiesto-del-movimiento-estu.pdf>

에게 로페스의 수감은 여러 가지 이슈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 그 증거 가운데 하나는 한 달 후, 로페스가 수감된 라모 베르데 교도소 근처에서 있었던 시위에서 찾을 수 있다. 꽤 많은 사람이 모이기는 했지만 그 즈음 카라카스에서 발생한 시위 중에서는 가장 적은 인원이 참가했다.

푸요시는 현 갈등 국면의 또 다른 맥락으로 친정부적인 기업이 글로보비시온 뉴스채널과 주요 신문사를 모두 사들인 이후 정확한 정보 전달이 어려워지고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점에 주목한다. 대중매체를 통해서 접할 수 있는 정보는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시위 준비부터 집회, 탄압 등 시위에 관한 모든 정보는 주로 사회관계망서비스, 휴대전화 문자 또는 집회 참가자들이 모인 도시 공간 내에서 입소문으로 전해지는 이야기 등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학계에서 말하듯이, 학생 시위의 구체적인 요구는 탄압 중단, 친정부 무장 세력 해체, 경찰과 군인의 인권침해 처벌, 선거관리위원회나 감사원과 같은 공권력 혁신 등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요구는 대부분 협상의 여지가 거의 없다. 여전히 지역주민 시위에서 찾아볼 수 있긴 하지만, 마두로 대통령 퇴진은 학생들의 요구 사항에서 사라졌으며, 제헌회의소집 이슈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시위와 정부의 대응은 격한 정치적 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최이슬기 옮김]